

코로나에도 매출 2배 뽐 널디, 호랑이 타고 해외 노린다

지난해 연매출 1000억 기록
공격적이고 특화된 마케팅
'타이거 에디션' 제품 선보여

에이피알의 스트리트 브랜드 '널디(Nerdy)'가 2017년 론칭 이후 연간 매출이 전년 대비 60% 이상 상승하는 데 이어 지난해에는 1000억원대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10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널디는 지난 3년간 2019년 약 360억원, 2020년 550억원, 2021년 1000억원 가량의 연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 시국에도 매출 두 배 증가라는 의미만한 성과를 달성한 널디는 패션 1번지라 불리는 동대문 현대면세점(구 두타)에서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중 월 매출 1위를 이루기도 했으며, 면세점 부문으로만 보면 지난 11월, 전년 대비 500% 이상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다.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프로그램 속 댄서가 입어 화제가 된 브랜드 널디.

/에이피알

기존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이자 해외 라이선스 브랜드 MLB와 이름이 나란히 호명될 정도로 성장했다.

널디의 이러한 성장은 공격적이고 특화된 마케팅이 뒷받침했다는 분석이다. 개성 있는 브랜드명과 색감, 연예인

협찬을 통해 국내에서 단기간에 인지도를 올렸고, 얼마 전까지 유명 방송에서 노출된 뒤 한류 열풍 바람을 타고 대외적으로도 판매됐다.

'널디(Nerdy)'는 영어로 '뭉툰이'라는 뜻으로 풀이되며, 서구권에서 '너드

하다'는 표현은 아웃사이더(인기가 없는), 비주류의 의미 정도로 해석된다. 널디는 '현실의 사회적 잣대에 물들지 않고 각자의 개성을 당당히 표현하자'는 뜻을 내포한 파격적인 브랜드명에 오버핏 사이즈 핏, 형광이나 보라색과 같은 원색의 색상을 선보이는 등 자유분방한 콘셉트로 빠르게 인기를 얻었다.

널디는 SNS 마케팅과 연예인 협찬을 통한 잦은 미디어 노출로 국내에서 눈도장을 찍은 뒤 이를 기반으로 해외로 뻗어나갔다. 최근에는 CJ ENM의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가 화제를 모으며 출연 댄서들이 입을 의상으로 알려져 K-스트리트 패션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면세점 매출이 500% 이상 늘어난 것은 중국에서 한국 패션 브랜드로 눈에 띄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기와 더불어 현지 MZ 세대와 2000년대 이후 세대의 소비 증가가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연예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브랜드로 방송, CF, 잡지 등 다양한 미디어 부문에서 협찬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널디는 2022년에 호랑이의 해를 맞아 '타이거 에디션'이라는 특화된 마케팅 제품을 선보인다. 론칭 초 개발한 캐릭터인 '네디(Neddy)'가 호랑이로 메이크오버한다는 스토리를 가지고 제작했다. 유쾌한 감성으로 네디의 캐릭터를 진취적이고 용맹한 호랑이 디자인으로 승화시켰다.

김병훈 에이피알 대표는 "널디는 지난해 발전을 통해 호랑이 등에 올라탄 '기호지세(騎虎之勢)'의 기운을 탔다. 우리의 끊임없는 도전정신을 이번 타이거 에디션으로 표현했다"면서 "한국에서 시작한 본투비 K-스트리트 패션 브랜드로 올해도 국내의 시장을 선도하는 널디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당뇨치료 복합제 임상1상 승인

대용제약 단일제 임상 완료
환자의 복약 편의성 향상 기대

대용제약이 당뇨병 치료물질 두 가지를 합쳐 복약편의성을 강화한 복합제를 신속 개발 중이다.

대용제약은 이나보글리플로진에 메트포르민을 더한 복합제 임상 1상 시험을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임상은 각 성분을 병용 투여했을 때와 복합제로 투여했을 때의 효능을 비교하기 위한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시험으로 대용 측은 해당 임상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이나보글리플로진 단일제와 메트포르민을 추가한 복합제를 동시에 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단일

제 임상은 현재 완료 단계로 대용 측은 내년에 이나보글리플로진 신약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복합제 개발은 환자의 복약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메트포르민은 당뇨병 치료에 가장 표준적으로 쓰이는 약물인데다 SGLT-2 억제제와의 병용투여는 현재 가장 많이 처방되는 치료법 중 하나다. 두 성분의 복합제 시장은 국내에서 약 500억 원대 규모로 형성돼 있다. 뿐만 아니라 DPP-4 억제제 성분까지 더한 3제 병용 임상시험도 최근 완료돼 3제 복합제도 개발 추진 중이다. 이나보글리플로진은 대용제약이 국내 제약사 중 최초로 개발 중인 SGLT-2 억제제 당뇨병 치료 신약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KGC인삼공사 "올 설엔 서로의 응원이 되어주세요"

원이 되어주세요' 프로모션을 알리고 있다.

KGC인삼공사가 10일 서울 한국인삼협회에서 '올 설엔 서로의 응

/손진영 기자 son@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1500억 자사주 매입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주가인정 및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10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

셀트리온이 매입할 자사주는 총 54만 7946주, 취득 예정 금액 약 1000억원 규모로,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총 67만 3854주, 취득 예정 금액 약 500억원 규모다. 양사는 2022년 1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 장내매수를 통해 자사주를 취득한다는 계획이다.

셀트리온그룹 경영진은 최근 주가 하락에 따라 기업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고 판단하고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 자사주 취득 전 현재 보유중인 자기주식은 셀트리온 132만 3130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173만 6205주다.

/이세경 기자

의약품 수출액 10조... K-제약바이오 뿔뿔

2021 제약바이오산업 데이터북
제약바이오산업 종사자 11만명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산업 규모가 커지고, 수출·연구개발·임상·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체의 투자와 혁신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10일 발간한 '2021 제약바이오산업 데이터북'에 따르면 2020년 제약산업계의 의약품 등(완제약+원료약+의약품) 총생산금액은 28조284억원으로, 5년전보다 36.4% 늘었다.

GDP 기준으로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4.1%에서 지난해 5.8%로 뛰었다.

2016년 3조6209억원에 머물던 의약품 수출액은 2020년 10조원에 육박하는 9조9648억원까지 확대됐다. 한국 의약품은 2020년 사상 처음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다.

일자리창출도 지속되고 있다. 제약

바이오산업 종사자는 2019년 처음으로 10만명을 돌파했으며, 2020년에는 전년보다 1만여명 증가한 11만 4126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제약바이오산업계의 연구개발비 총액은 2조1900억원으로, 전년(1조8057억원) 대비 21.3% 증가했다. 제약바이오산업 전체의 매출 대비 연구개발 비중은 6.5%로, 제조업 평균(2.6%)의 2배를 훌쩍 넘었다. 여기에 상장 제약기업 12.3%, 혁신형 제약기업은 14.2%로 조사됐다.

임상시험도 신장세를 보였다. 합성 의약품의 임상시험 승인건수는 387건(2016년)에서 485건(2020년)으로, 100건 가까이 늘었다. 바이오의약품은 226건(2016년)에서 291건(2020년)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해외 임상이 국내 임상보다 활발했다. 국내 임상건수는 190건(2016년)에서 256건(2020년)으로, 다국가임상은 같은 기간 267건에서 355건으로 파악됐다.

/이세경 기자

“시한폭탄’ 뇌동맥류, 조기 치료 중요”

조동영 이대서울병원 교수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머릿 속 시한폭탄’이라고 불리는 뇌동맥류는 전조 증상이 없고 파열될 경우 사망률이 50%에 육박하는 아주 위험한 질환이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하게 치료만 하면 예후가 좋고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해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뇌동맥류란 뇌동맥 벽의 일부분이 약해지면서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파리를 만드는 질환이다. 일단 파리가 만들어지면 뇌 혈류가 파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동맥류가 점점 커지거나 파열될 수 있다. 만약 뇌동맥류가 파열되고 지주막하출혈이라는 뇌출혈이 발생할 경우 사망률이 무려 50%에 육박한다.

뇌동맥류를 발견하게 되면 예방적 치료를 시행하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먼저, 머리를 열고 뇌동맥류를 직접 결찰하는 개두술 및 클립결찰술이 있다. 두 번째로는 머리를 열지 않고 대퇴동맥을 통해 혈관 내로 동맥류에 접근해서 치료하는 신경중재치료방법이 있다.

뇌동맥류 치료는 다른 무엇보다 안정성이 더욱 중시된다.

이대서울병원 신경외과 조동영 교수는 “전문의를 믿고 치료에 임해 준다면 보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 교수는 뇌혈관과 전문의로서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뇌혈관내수술,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신경중재치료 인증의다. 전문의가 100% 전담 진료하는 이대서울병원에서 24시간 대기 모드로 응급 수술 및 시술을 도맡아 진행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신세계L&B '와인앤모어'

스마트오더 시범 운영

신세계그룹의 주류유통전문기업 신세계L&B(신세계엘앤비)가 직영하는 주류전문매장 '와인앤모어'에서 스마트오더(앱으로 예약 주문 후 매장서 상품을 찾아가는 시스템)를 10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시범 운영 매장은 서울 대입구역점과 서소문점이다.

신세계엘앤비는 고객이 별도 모바일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와인판매 솔루션 와인루트를 통해 스마트오더를 도입했다. 와인앤모어 서울대입구역점 또는 서소문점 채널을 추가한 뒤 상품을 주문, 결제하면 된다. 채널을 추가한 소비자는 안내 메시지를 통해 스마트오더로 구매 가능한 프로모션 리스트를 받을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